

남구 “책·일상 어우러진 문화 체험 참가하세요”

이달 중 ‘북적북적 원정대’ 모집
구립도서관 4곳·30팀씩 선착순
임무 수행·식물 재배·쿠킹 클래스
오는 8월까지 개별 스탬프 투어도



광주 남구는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색 프로그램 ‘북적북적 원정대’의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은 북적북적 원정대 참가자가 스탬프 투어를 하고 있는 모습. <광주남구 제공>

광주 남구가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이색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구립도서관(문화정보·푸른길·청소년·효천어울림) 4곳에서 ‘북적북적 원정대’ 참가자를 모집한다.

북적북적 원정대는 ▲스탬프 투어 ▲식물 성장 관찰일지 ▲쿠킹 클래스 ▲아카이브 북제작 등 4개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모든 활동 과정은 디지털 게시판 ‘패들렛’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공유된다.

원정대 참가자들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구립도서관 4곳 중 1곳을 출발지로 선택해 관내 작은도서관 4곳을 찾아 임무를 수행한다. 수행

을 완료하면 스탬프와 함께 식물재배 키트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키트를 활용해 7월부터는 식물의 성장 과정을 관찰 일지에 기록하고 8월 쿠킹 클래스에선 직

접 기른 식물로 요리하는 체험의 시간을 갖는다. 9월에는 원정대의 발자취가 담긴 아카이브 북을 제작하고 10월에 수령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모집 규모는 도서관마다 30팀씩 총 120팀이다.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한 팀당 인원 규정은 없지만, 남구는 3-4명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 스탬프 투어는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8월까지 참가할 수 있다.

참가 방법은 구립도서관 4곳 중 1곳에서 받은 스탬프 투어 리플릿을 지참한 채로 작은도서관 4곳을 방문해 도장을 찍는 것이다.

이를 완료한 이들에게 식물재배 키트와 도서 대출 가능 권수를 7권에서 10권으로 상향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광미아 남구 도서관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과 책을 중심으로 사람과 공간, 이야기를 연결하면서 일상의 여행을 제안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천천히 걷고, 읽고, 머무는 경험을 통해 우리 지역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형우기자

동구, 오는 23일 ‘올해의 책’ 선포식

광주 동구는 19일 “오는 23일 오후 3시 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2026 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동구는 ‘AI 시대, 사람답게 선택하는 삶’을 중심 주제로 삼아 인간의 존엄성과 관계의 가치를 성찰하고 실천하는 인문 독서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독서 전문가와 주민 추천을 통해 ‘올해의 책’ 후보 도서 365권을 접수한 동구는 도서 선정단 회의와 온라인 투표, 최종 심의를 거쳐 유아 2권, 어린이 2권, 청소년 3권, 성인 3권 등 총 10권을 확정했다.

유아 도서는 ▲봄이 들면(김영화) ▲특별주문 케이크(박지은)가 선정됐고, 어린이 도서는 ▲멋진 민주 단어(서현외) ▲이투의 세상(정설아)이다. 청소년 도서는 ▲파이트(이리아) ▲나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김종원) ▲유자는 없어(김지현), 성인 도서는 ▲과학산문(김상욱·삼재경) ▲노 피플 존(정이현)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텐데(공현진)가 올해의 책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포식은 올해의 도서를 구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고 한 해 동안 이어질 독서 운동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올해의 책 선정 과정 소개를 시작으로 작가 축전 영상 상영, 올해의 책 선포 낭독, 도서 전달식, 도서 전시 등으로 진행된다.

동구 관계자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올해의 책 함께 읽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독서문화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기자

북구, ‘고유가 지원금’ 전담 TF 가동

부구청장·9개 부서·27개 동 참여
오는 27일 차상위계층 등 지급 시작

광주 북구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전담 조직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민 중 이번 피해지원금 수혜 대상은 35만여명이다. 이는 광주·전남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규모로, 북구는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팀을 지난 14일 구성하며 관계 부서 회의를 개최했다.

TF팀은 민생경제과를 중심으로 분청 9개 부서와 27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참여하며 ▲총괄 운영 ▲지급 지원 ▲이의신청 처리 ▲찾아가는 서비스 등 4개 팀으로 운영된다.

구는 신청 개시 전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인력과 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총괄 콜센터를 운영해 대상자 확인과 이의신청 처리 등 각종 민원 대응에 나선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시행하고 분청 공직자와 자원봉사자를 현장에 추가 투입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신

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북구는 취약계층 명단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 안내에 나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거점 현수막 설치,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포스터 비치, 통장단과 SNS를 활용한 홍보를 병행해 지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문인 부구청장은 “국제적 경제 위기 속 주민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이 기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수령 대상이며 그 외 70% 국민은 2차(6월 18일~7월 3일)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윤찬웅기자

광산구, 맞춤형 안전교육 ‘투트랙’ 가동

5-9월 ‘찾아가는 교실’ 80회 운영
재난업무 종사자 전문성 강화도

광주 광산구는 19일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시민들의 재난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의 교육 대상은 일반 시민과 재난 안전 종사자로 총 80회에 걸쳐 진행된다.

전문 강사가 어린이집, 학교, 복지시설 등 회

망 장소를 방문해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현장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화재 예방, 교통 안전, 응급 처치, 보이스피싱 예방 등 실생활과 밀접한 필수 안전 수칙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교육신청은 광산구 누리집 또는 홍보물 내 정보누리(Q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은 전자우편(yooa33@korea.kr)이나 네이버 폼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이와 함께 광산구는 공직 내부의 실전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지역경제활력센터에서 재난안전 분야 담당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자체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외부 기관 위탁에 따른 출장 부담을 줄이고, 실제 자연·사회 재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습 위주 교육을 통해 부서 간 현장 협

업 체계를 한층 고도화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와 체계적인 훈련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해 지역 내 안전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육근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